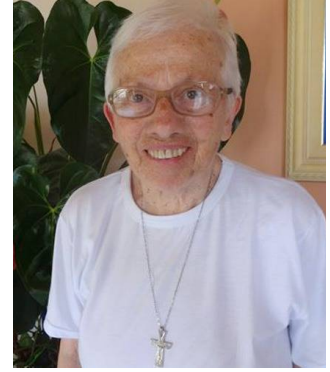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아멜리아, 마리아 다 글로리아 미고트 수녀님이  
**AMÉLIA, SR MARIA DA GLÓRIA MIGOTT**  
2026년 4월 27일, 오늘 6시 40분(현지시간)에  
브라질 카시아스 두 술 베타니아 공동체에서  
95세(수도생활 65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오늘 전례의 복음 말씀인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리아 다 글로리아 수녀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수녀님은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기쁘고 너그러운 빠스또렐라로서 충실히 받아들이고  
살아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선한목자예수 축일을 지냈습니다. 글로리아 수녀님은 공동체와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여러 번 이 특별한 축일을 기념해 오셨으며, 오늘 마침내 지상의 삶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 선한 목자의 결정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아멜리아는 1931년 3월 21일 몬테네그로/RS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3월 30일 가리발디/RS의  
항해자의 성모님 경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년 3월 7일 카시아스 두 술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959년 2월 1일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60년 2월 2일 첫 서원을 하며 마리아 다  
글로리아라는 수도명을 받았고, 1965년 2월 2일 역시 카시아스 두 술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글로리아 수녀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인내심이 많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으로 묘사됩니다. 함께 지내기 편안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기를 좋아했으며,  
자신의 빠스또렐라 성소를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공부와 사도직을 사랑하는 수녀로서 맡은 일을  
열심과 성실함으로 수행하였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도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서원 후 여러 공동체에서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교리교육, 학교, 전례, 사목 봉사자  
양성에 헌신하였고, 특히 가정사목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60년 피라타바-토레스/RS, 1962년 파군데스 바렐라, 1963년 카넬라/RS, 1965년 벤투  
곤살베스/RS, 1972년 카시아스 두 술-상 레오폴도, 1983년 파군데스 바렐라/RS, 1984년 카주자  
페헤이라/RS에서 사목했습니다. 1990년에는 카시아스 두 술에서 새로운 관구 본원의 개축

작업에 협력하였고, 1997년 카넬라/RS로 갔습니다. 2012년에는 캄포 벨로 두 술/SC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사목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봉헌생활 50주년을 준비하며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기쁨 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마리아님, 당신의 너그럽고 기꺼운 '예'로 저를 도와주시어, 저도 당신과 같은 너그러움으로 '예'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찬미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제 삶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은총을 주소서. 저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 가난한 이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모습 안에서 선한목자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빠스또렐라로 부르신 그분의 힘과 은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2015년부터 건강은 점점 약해졌고, 필요한 돌봄을 받기 위해 사랑으로 베타니아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직접적인 사도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수녀님은 병상의 시간을 기도와 매일의 평화로운 자기 봉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헌신과 너그러움으로 글로리아 수녀님을 돌보며 사랑으로 가까이해 준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글로리아 수녀님은 삶과 모든 사람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빠스또렐라 수녀로서의 사명에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례 안에서의 아름다움, 성당의 꽃과 정원의 돌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환대의 정신이 강했고 깊은 영성을 지녔으며, 수녀님들과 사제들과도 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삶과 자연, 집안의 모든 것에 마음을 두었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캄포 벨로 두 술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사도직을 떠나야 했을 때 매우 힘들어했지만, 삶의 새로운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병을 살아가는 데 있어 평온했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밝은 초처럼 자신을 다 태우며, 베타니아 집의 간호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의 존재를 침묵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큰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께 글로리아 수녀님의 삶과 성소에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충실한 빠스또렐라였던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며, 어제 온 교회가 함께 지낸 성소 주일을 기억하면서 성소자들을 위해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년 4월 27일, 멜버른(호주)

예루살렘의 주교, 순교자 성시메온